

책이 펼친 올해의 키워드,

# 노장사상



**“이성, 잔치는 끝났다”,  
새로운 시대의 기획 전하는 노장사상**  
●

무성영화 <모던타임즈>(1936, 찰리 채플린 감독)는 산업사회 속에서 부품화된 인간 존재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컨베이어의 속도에 맞춰 끊임없이 나사못을 죄는 찰리 채플린은 작업장을 떠나서도 우스꽝스런 그 동작을 반복한다. <모던타임즈>가 들이미는 풍자는 작금에도 날카로움을 잃지 않는다. 출몰하는 전쟁과 테러, 압박하는 경제,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경쟁논리 등 산업사회가 생산한 또 다른 컨베이어 앞에서 우리 역시 끊임없이 나사못을 죄고 있는 것이다.

‘노장과 21세기’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노장사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필요한 지침으로 조명받고 있다. ‘현실도피 혹은 은둔의 처세’로 노장사상이 평가 절하되던 때도 있었다. 산업사회의 병폐가 미덕이 되던 때, 탈현실주의적 세계를 제시한 노장사상은 피로해진 몸과 머리를 잠시 식혀주는 대안에 불과했다.

2004년 키워드로 등장한 노장사상은 대안이 아닌 필연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 2004년 활발히 출간된 책들은 “왜 지금 노장인가, 노장이 현대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충실히 답하고 있다.

《사유하는 도덕경》을 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형호 교수는 “현실을 긍정하면서도 마음의 본성을 찾는 법을 가르치는 노장의 사유야말로 21세기 신실학新實學”이라며 노장사상의 현재적 의미를 전한다. 배금주의와 인간의 상품화를 생산한 현실주의적 사상에만 문제가 있지 않다. ‘선의 추구’라는 고매한 혁명적 주장만

펼친 반대쪽 이상주의적 사상 역시 많은 폐해를 내보였다. 김 교수는 “흑백논리로 세상을 재단하는 인류 정신사의 두 사상을 노장이 가볍게 극복하고 있다”며 “선악의 대결을 넘어서는, 지혜의 길 ‘무’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중들에게 노장을 가깝게 앉힌 김용옥 교수의 《노자와 21세기》 역시 그 입장에 동감한다. 김 교수는 《노자와 21세기》에서 “반자본주의, 환경, 여성 등을 기본구도로 무위자연을 강조하는 노장사상만큼 뉴밀레니엄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사상은 없다”고 말한다. 서구문명이란 깃발을 들고 ‘더 빨리 더 높이 더 세게’ 달려온 우리에게 “여유와 힘을 남겨두는 노자 철학의 실현은 중요한 과제”임을 김 교수는 설파한다. 노자 강의 선구자인 김충열 교수 역시 “인류를 지배해 온 이성의 시대가 가고 감성의 시대가 도래한다. 21세기에는 노자가 말한 ‘해체’와 ‘분산’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노장이 현대에 적극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이런 의미를 더하자면, 은둔 혹은 도피주의가 아닌, 현실의 문제를 치열하게 끌어안고 있는 것이 노장사상이다.

이성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노장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획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기획의 성사 여부를 떠나서라도 오늘 이곳의 문제를 진단하고 반성케 하는 것만으로도 노장사상은 큰 값을 지닌다. 실천의 한 방법은 ‘웰빙’이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급박한 현실을 뒤로 하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웰빙은 분명 노장에게 빚을 지고 있다.

취재 | 박용두기자

《도덕경》 완역 붐으로 시작,  
철학적 진단으로 흐름 이어

●

노자의 《도덕경》 원문을 완역한 《완역 이경숙 도덕경》(이경숙, 명상)은 지난 2,500년간 어느 누구도 《도덕경》을 이해 가능한 텍스트로 만들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시작한다. 그간 구분했던 《도덕경》 해석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이며, 《도덕경》이 갖는 원래 의미에 가장 가깝게 다가섰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저자 이경숙은 《도덕경》이 씌어졌던 시대가 문자의 시대라기보다는 말의 시대에 가까웠다는 점을 강조한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하듯 노자는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자신의 생각을 들려줬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선인의 문장을 후대의 문법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오독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저자는 정본으로 꼽히는 왕필 《도덕경》의 오독을 서슴없이 파헤치며 2,500년 전 노자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한다. 《완역 이경숙 도덕경》을 필두로 《진고응이 풀이한 노자》(진고응, 영남대학교 출판부) 《노자의 마음으로 도덕경을 읽다》(정대철, 한얼미디어) 등 《도덕경》 원문을 완역한 책들이 부지런히 출간되며 2004년 초반부터 노장사상을 주목케 했다.

노장사상의 원류인 《도덕경》 완역 붐이 한 축을 이룬다면, 노장사상의 철학적 진단은 다른 한 축을 이루었다. 《사유하는 도덕경》(김형효, 소나무)은 《도덕경》을 해체철학의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한다. 하이데거의 ‘탈근거’, 불교의 ‘연생(緣生)’ 혹은 ‘연기법’은 《도덕경》의 중심개념 ‘무’와 통한다. 유/무, 선/악, 미/추, 장/단 등 존재사이의 수직적 위계가 아닌, 수평적 왕복을 통해 관계를 해명하는 상관론적(해체적) 사유의 세계가 《도덕경》의 근간임을 밝힌 저자는 “세상의 비밀에 대해 주술적으로 기록해 둔 것으로 여기거나 임기응변적인 덕담

수준으로 도덕경을 보는 경향을 버리라”고 충고한다.

1980년에 출간돼 노장사상의 여러 철학적 해석의 기반이 된 《노장사상》(박이문, 문학과지성사) 개정판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노장사상의 위치를 재평가하는 오늘의 철학사적 분석 앞에서, 학문적 엄밀성을 잃지 않고 설득력 있게 노장사상을 해부하는 저자의 솜씨는 여전히 윤이 난다. ‘도와 진리’를 철학의 관점으로, ‘무위와 실천’을 종교의 관점으로, ‘소요와 가치’를 이념의 관점으로 분석, 진단하고 있다. “노장이 주장하는 급진적인 이념을 오늘날의 인간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겠지만, 우리들의 자연에 대한 태도, 우리들과 자연의 관계,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들을 반성케 한다”고 저자는 밝힌다.

《장자의 철학》(강신주, 태학사)은 노자와 장자를 철저히 분리, 노장사상 해석의 새로운 층위를 밝혀 보인다. 노자의 철학이 국가의 작동원리라는 층위에서 사유하고 있다면, 장자의 철학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독적 개체나 주체의 층위에서 사유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저자는 “장자의 철학이 과연 노자의 철학을 반복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노자의 철학을 반복하고 있는 부분은 《장자》 전체가 아니라 《외편》과 《잡편》에만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2004년의 키워드 노장사상은 《도덕경》 완역 붐으로 시작, 철학적 진단으로 그 흐름을 이어갔다. 완역이든 철학적 진단이든 그 전체를 확실하게 관통하는 중심 맥락은 없다. 접고 펴는 노장사상 주름의 층위를 즐겨볼 수 있다는 것은 오늘 노장사상을 읽는 즐거움이기도 하다. ■

〈용〉

